

# 융복합시대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요인과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백진아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Fandom Activities in the Times of Converge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Psychological Factors and Life Satisfaction

Jina Paik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융복합시대의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팬덤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심리적 요인 및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변수간의 경로분석 모형을 살펴보았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 긍정적 양육태도는 팬덤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에 부적, 삶의 만족도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양육태도는 심리적 요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삶의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심리적 요인은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삶의 만족도는 팬덤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심리적요인은 긍정적 양육태도와 팬덤활동 간에 완전매개 역할을 하였으며, 부정적 양육태도와 팬덤활동 간에는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부모양육태도, 심리적 요인, 삶의 만족도, 팬덤활동, 융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fandom activities, and to prove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factors and life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adolescents' fandom activiti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hile negative parenting attitude influenced negatively adolescents' fandom activities, positive parenting attitude had no effect on them. Second, positive parenting attitude had negative effect on adolescents' psychological factors, but negative parenting attitude influenced positively them. Third, adolescents' psychological factors influenced positively their fandom activities. Fourth, adolescents' psychological factors had perfect mediating effect between positive parenting attitude and their fandom activities, and they also played partial mediating role between negative parenting attitude and their fandom activities.

**Key Words** : Parenting Attitude, Psychological Factor, Life Satisfaction, Fandom Activity, Convergence

\* 이 논문은 2013년도 한세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Received 23 July 2015, Revised 27 August 2015

Accepted 20 September 2015

Corresponding Author: Jina Paik (Dept. of Social Welfare)

Email: jpaik1@hanafos.com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 1. 서론

현대사회에서 인터넷과 대중매체의 확산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또래집단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에 놓여 있는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대중문화의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대중스타에 대한 선망과 부러움이 증가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의 모든 것을 경배하고 모방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1]. 연예인에 대한 동경은 가치관이나 정체성을 형성하는 청소년시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2],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따르고 우상시하는 태도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청소년의 일상적인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즉 스타에 대한 몰입이나 중독 현상으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받으며[3], 스타의 일상이나 활동과 관련된 정보검색과 자료수집에 몰두함으로써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특히 팬덤활동이 활발해질수록 스타의 정보 확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학습에 태만해지기 때문에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심지어 연예인의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집요하게 쫓아 다니는 사생활과 사생활, 팬클럽 회원간의 사기와 폭력, 특정인에 대한 악의적 비난 등의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의 팬덤활동 참여는 일부 '문제있는' 청소년 집단의 일탈적인, 혹은 탈규범적인 행동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연예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특히 단기간에 부와 인기를 누리는 아이돌 그룹에 대한 선망과 관심이 극대화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지원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집단적인 팬덤활동은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잡게 되었다. 즉 팬덤활동의 참여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특정 집단의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대부분의 청소년이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동 시대의 문화를 즐기며, 같은 집단의 구성원임을 확인하는 정체성의 일반적인 발달과정으로 인식된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있어 스타는 우상화의 대상이나 롤모델이 되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이나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어 보다 긍정적인 자기 발전과 사회봉사의 참여를 이끌어내며<sup>1)</sup>, 팬덤활동을 통해 소

속감과 친밀한 또래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대인관계가 높아지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5]. 또한 이러한 관계 형성 과정에서 표현능력이 향상되고 정서적인 욕구를 해소할 수 있으며[6], 팬덤문화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문화실천의 주체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7]. 이처럼 연예인과 함께 하는 사회봉사와 기부의 확산 등 팬덤활동의 긍정적인 의미가 부각되면서 청소년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이 즐기는 문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 하위문화로서의 팬덤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 팬문화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우상화의 현상에 주목하여 설명요인을 밝히고[8,9], 팬클럽 분석을 통한 팬덤현상과 집단 내 관계의 정치성을 설명하거나[10,11], 혹은 팬덤활동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4] 등에 집약되어 논의되어 왔으며, 실제 어떤 요인들이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는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팬덤활동이 청소년 문화의 한 부분이고 팬덤현상이 청소년의 발달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소년의 발달 및 사회문화적 적응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요인은 가정환경이다. 가정환경은 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사회 관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12].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이나 정서, 자아개념 및 가치관 등에 영향을 미치고, 발달 과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에도 중요성을 갖는다. 부모양육 요인은 청소년의 우울이나 공격성 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신체적 발달과 인지 발달 뿐 아니라 정서안정과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기[13] 때문에,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안정을 위해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필요하다는 결과[14]도 보고되고 있다. 반면에, 부모가 과보호하거나 일관적이지 못한 양육태도를 보일 경우, 청소년의 우울이나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공격성과 고립감, 대인 회피 등의 정서적 부적응 양상을 보이며, 폭력과 비행 등의 일탈적 행동을 유발하기도 한다[15]. 따라서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이나 문화적 적응과 행동양식을 보다 구

1) 동방신기 유노윤호의 팬들이 정성을 모아 완성한 가나의 유노윤호교육센터 건립과 다국적 팬들의 각종 기부 및 지속적

인 봉사활동 등은 연예인의 선행을 이어가는 팬덤활동의 가장 긍정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애착적이고 신뢰에 기초한 합리적인 태도로 양육하는 긍정적 양육태도와 과잉기대나 비밀관성으로 특징지어지는 부정적 양육태도를 구분하여 부모양육유형에 따른 영향력을 개별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부모양육요인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청소년의 팬덤활동과 직접 결부지어 분석된 연구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부모양육태도를 주요 설명변수로 주목하고자 한다.

한편,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와도 관련되어 있다.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생활환경에서 경험하는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만족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방식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부모와의 애정적 연대감에 기초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청소년이 느끼는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도도 더 높아지게 된다. 또한 가족구조로 인한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즉 양부모 가족에 비해 한부모 가족이 청소년을 지지하고 상호작용할 성인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17,2 재인용].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문화참여 및 팬덤활동은 부모 양육태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과 삶의 만족도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사회적인 고립감을 느끼는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간섭과 과잉보호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인 불안을 회피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또래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팬덤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해 부정적이고 만족도가 낮은 경우에도 현실에서의 무력감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팬덤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스타에 대한 몰입이나 중독현상이 나타나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한다[2]. 이와 같이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팬덤활동 사이에 심리적 요인과 삶의 만족도의 매개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청소년의 팬덤활동은 일부 학생들의 일탈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청소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

스럽게 접하는 문화의 일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팬덤활동에 대한 논의는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과 사회적 관계 구축, 독립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문화적 주체로서의 긍정적 의미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주제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부모양육과 팬덤활동 사이에서 작용하는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과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3)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4)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팬덤활동 사이에서 심리적 요인 및 삶의 만족도는 어떤 매개역할을 하는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4차년도(2013) 중1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부합되는 2,108명의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는 청소년과 없는 청소년이 각각 45.2%, 44.5%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45.7%, 43.9%)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주관적인 본인의 성적은 '만족하지 않는 편'과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가 58.2%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대상자의 가족 구성을 살펴보면, '부모(아버지+어머니)+자녀'가 7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한부모+자녀' 8.3%, '(한)조부모+부모+자녀' 4.6%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연소득은 4,000만원이상~6,000만원미만이 가장 많고(29.8%), 다음으로 2,000만원이상~4,000만원미만(26.5%)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청소년들의 아버지 교육수준은 전문대졸이상(45.9%), 고졸이하(37.4%)순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 고졸이하(47.9%), 전문대졸이상(36.2%)순으로 나타났다.

## 2.2 측정도구

### 2.2.1 부모양육태도 척도

부모양육태도 척도는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 척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긍정적 양육태도는 애정과 합리적 설명에 기초한 양육태도를 포괄하며, 척도는 총 7문항으로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부모님께서는 부모님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 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신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Likert 4점 척도이며 '매우 그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문항은 역코딩을 하여 분석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매우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며, 긍정적 양육태도의 Cronbach's alpha값은 0.838이다.

부정적 양육태도는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으로 특징지어지는 양육태도를 의미하며, 척도는 11문항으로 '부모님(보호자)께서는 같은 일이라도 어떤 때는 야단을 치시고 어떤 때는 안 치신다', '나는 부모님의 기대가 항상 내 능력 이상이어서 부담스럽다', '부모님께서는 보통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불안해 하시며 내게는 못 하게 하신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Likert 4점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역코딩을 하여 분석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양육태도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부정적 양육태도의 Cronbach's alpha값은 0.845으로 나타났다.

### 2.2.2 심리적 요인 척도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 척도는 우울과 사회적 위축성 및 공격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척도는 총 21문항으로 '걱정이 많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Likert 4점 척도이며 '매우 그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문항은 역코딩을 하여 분석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심

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어려움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뜻하며, 심리적 요인의 Cronbach's alpha값은 0.909이다.

### 2.2.3 삶의 만족도 척도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척도는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등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Likert 4점 척도이며 '매우 그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역코딩을 하여 분석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삶에 대해 주관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뜻하며, Cronbach's alpha값은 .0807로 나타났다.

### 2.2.4 청소년 팬덤활동 척도

청소년 팬덤활동 척도는 적극적 팬덤활동과 소극적 팬덤활동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적극적 팬덤활동 척도는 '팬미팅 참석', '방송국이나 공연장, 경기장 가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극적 팬덤활동 척도는 '팬클럽이나 팬카페 가입', '홈페이지 방문' 등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Likert 4점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역코딩을 하여 분석하였다.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팬덤활동을 다양하고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팬덤활동의 Cronbach's alpha값은 0.861이다.

## 2.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WIN21.0과 Amos 21.0 통계프로그램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부정적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심리적 요인 및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변수는 각 변수들의 평균값을 뜻하며, 이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기술통계 및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변수 간의 경로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으로 검증하였다. 셋째, 심리적으로인 및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는 Bootstrapping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분석

<Table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정리한 것으로, 각 변수들의 평균(표준편차, sd)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양육태도의 평균값은 2.87(sd 0.51), 부정적 양육태도의 평균값은 2.28(sd 0.50)이고, 삶의 만족도 평균값은 2.83(sd 0.442), 심리적 요인 평균값은 2.03(sd 0.47), 팬덤활동 평균값은 1.56(sd 0.61)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각 변수 중 팬덤활동의 평균은 중간값에 비해 약간 낮으며, 긍정적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평균은 중간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팬덤활동 변수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연구대상자가 팬덤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경로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면, 왜도와 첨도는 절대값이 3과 10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각 변수들을 Amos로 분석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양육태도는 삶의 만족도( $r=.314, p<.01$ )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심리적 요인( $r=-.266, p<.01$ )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심리적 요인은 삶의 만족도( $r=-.435, p<.01$ )와 가장 높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팬덤활동( $r=.128, p<.01$ )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Table 2>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 variable | coefficient |        |         |         |   |
|----------|-------------|--------|---------|---------|---|
|          | 1           | 2      | 3       | 4       | 5 |
| 1        | 1           |        |         |         |   |
| 2        | -.122**     | 1      |         |         |   |
| 3        | -.266**     | .154** | 1       |         |   |
| 4        | .314**      | -.046* | -.435** | 1       |   |
| 5        | -.062**     | -.034  | .128**  | -.063** | 1 |

1:positive parenting attitude, 2:negative parenting attitude, 3:psychological factors, 4:life satisfaction, 5:fandom activity  
\* $p<.05$ , \*\* $p<.01$

#### 3.2 연구모형 검증분석 결과

##### 3.2.1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증

<Table 3>과 [Fig. 1]은 2013년 기준 고1 청소년(중1 패널 4차년도)을 대상으로, 팬덤활동에 있어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 및 삶의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설정한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이다. 청소년 팬덤활동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chi^2=275.85, df=35, p<.001, SRMR=.042, RMSEA=.054, CFI=.957$  등의 값을 나타내어 최적 모델 기준에 부합하여 모형이 적합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각 요인 간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를 애정과 합리적인 방법으로 양육할수록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적 위축감과 공격성을 완화시켜 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beta=-.349, t=-10.882, p=.000$ ). 하지만 부모가 부정적인 방식으로 양육할수록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울감과 불안감 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129, t=5.350, p=.000$ ). 부모가 자녀를 과잉 간섭과 과잉 기대 및 비일관적인 태도로 양육할수록 청소년들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18], 이러한 결과는 질풍노도의 시기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양육하는지에 따라 우울과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감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 variables             |                             | N     | Min. | Max. | Mean | S.D. | Skewness | Kurtosis |
|-----------------------|-----------------------------|-------|------|------|------|------|----------|----------|
| Parenting Attitude    | positive parenting attitude | 2,108 | 1.00 | 4.00 | 2.87 | .51  | -.29     | .61      |
|                       | negative parenting attitude | 2,108 | 1.00 | 4.00 | 2.28 | .50  | .27      | .47      |
| Life Satisfaction     |                             | 2,108 | 1.00 | 4.00 | 2.83 | .61  | .04      | .18      |
| psychological factors |                             | 2,108 | 1.00 | 3.69 | 2.03 | .47  | -.14     | -.32     |
| Fandom Activity       |                             | 1,062 | 1.00 | 4.00 | 1.56 | .61  | 1.18     | .94      |

<Table 3> Estimated Model

| Path  | B            | $\beta$ | S.E. | C.R.    |
|---|--------------|---------|------|---------|
| positive parenting attitude → psychological factors | -.349<br>*** | -.323   | .032 | -10.882 |
| negative parenting attitude → psychological factors | .178<br>***  | .129    | .033 | 5.350   |
| positive parenting attitude → life satisfaction     | .470<br>***  | .373    | .038 | 12.326  |
| negative parenting attitude → life satisfaction     | .021         | .013    | .037 | .567    |
| positive parenting attitude → fandom activities     | -.019        | -.013   | .045 | -.424   |
| negative parenting attitude → fandom activities     | -.112<br>*   | -.059   | .051 | -2.181  |
| psychological factors → fandom activities           | .245<br>***  | .179    | .045 | 5.431   |
| life satisfaction → fandom activities               | .064         | .055    | .035 | 1.810   |

\*p<.05, \*\*\*p<.001

한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beta=.373, t=12.326, p=.000$ ) 부모가 자녀를 긍정적으로 양육하면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긍정적으로 양육할수록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16]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부정적(과잉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19]와는 상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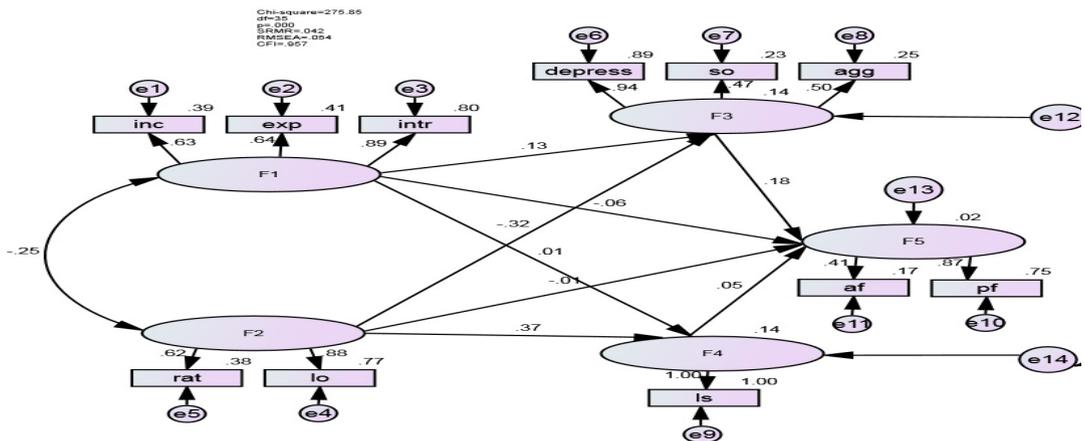
되는 결과이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부정적으로 양육할수록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 $\beta=-.059, t=-2.181, p=.05$ ) 반면,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은 팬덤활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beta=.179, t=5.431, p=.000$ ). 청소년의 심리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우울하고, 사회적인 자신감을 상실할수록 팬덤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팬덤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부모가 긍정적으로 양육하면 청소년의 부정적인 심리 기제들이 완충되고,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팬덤활동을 낮추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심리적 요인의 감소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심리적 요인의 증가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2 연구모형의 효과분해

<Table 4>는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 방식으로 효과분해



[Fig. 1] Amos Test of Proposed Model

주) F1=negative parenting attitude, F2=positive parenting attitude, F3=psychological factors, F4=life satisfaction, F5=fandom activity

〈Table 4〉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 Path                        |   | Direct Effects | Indirect Effects | Total Effects |
|-----------------------------|---|----------------|------------------|---------------|
| positive parenting attitude | → psychological factors                     | -.323***       |                  | -.323         |
| psychological factors       | → fandom activities                         | .179***        |                  | .179          |
| positive parenting attitude | → psychological factors → fandom activities | -.013          | -.038**          | -.051         |
| negative parenting attitude | → psychological factors                     | .129***        |                  | .129          |
| psychological factors       | → fandom activities                         | .179***        |                  | .179          |
| negative parenting attitude | → psychological factors → fandom activities | -.059*         | .024**           | -.036         |

\*p<.05, \*\*p<.01, \*\*\*p<.001

를 분석한 결과이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는 심리적 요인에 대해 직접적인 효과가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001 미만에서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부정적 양육태도는 팬덤활동에 유의수준 .05 미만에서 직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긍정적 양육태도는 팬덤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긍정적 양육태도는 팬덤활동에 유의수준 .01 미만에서 간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긍정적 양육태도와 팬덤활동 사이에 심리적 요인이 완전매개 역할을 하며, 부정적 양육태도와 팬덤활동의 관계에서는 부분매개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이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및 부정적 양육태도와 팬덤활동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주요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심리적 요인 및 삶의 만족도의 매개역할을 검증함으로써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미치는 경로를 함께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논의하고 그에 따른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유의수준 .001 미만의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지만, 긍정적 양육태도는 팬덤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애정에 기초한 합리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팬덤 참여와 같은 여가행위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과잉통제나 과잉간섭 혹은 일관적이지 못한 경향이 강할수록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놀려 눈치를 살피고 부모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놓인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양육을 받을수록 감정적인 기복상태를 극복하고 점차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이고 애착적인 양육태도가 심리사회적 불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20]와 일치한다. 반면에,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시기는 아직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고, 사회심리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지 않아 부모가 억압이나 통제 등의 부정적인 양육방식으로 지도할수록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며 사회적 고립감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강압적 양육행동이나 심리적 통제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사회적 부적응이나 위축행동을 보인다는 선행연구[15,21]를 지지하는 것이다.

셋째, 심리적 요인은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우울하고 불안하며 사회적으로 위축될수록 팬덤활동에 더 몰입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팬덤활동에 참여를 통해 현실의 심리적 불안을 회피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또래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소속감을 느끼며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반면에 삶의 만족도는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선행연구[22]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팬덤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중독현상으로 빠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보다 분석적인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심리적 요인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팬덤활동 사이에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양육태도와 팬덤활동 간에는 부분매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부모가 보여주는 애정과 합리적인 태도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청소년의 정서적 상태에 따라 팬덤활동의 참여여부나 참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즉, 긍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청소년의 부정적인 심리 기제들을 완충시키고, 불안정한 심리적 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팬덤활동을 낮추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과잉기대나 과잉간섭, 비밀관적인 훈육 방식의 경우, 청소년들은 부모의 권위나 기대에 대한 부담감 혹은 부모로부터 거부되는 부정적 자극을 피하기 위해 부모가 우려하는 팬덤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부정적 양육방식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고립감 강화 등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를 풀기 위해 더욱 팬덤활동에 몰두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심리적 요인의 증가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보화의 급속한 진행 및 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대중문화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청소년들은 유명인이나 대중스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특히 청소년 문화나 사회참여의 기회가 부족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유명 연예인을 통해 대리 만족을 느끼고[2], 자신들만의 독특한 팬덤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대중스타는 단순한 동경 이상의 대상으로서, 팬덤활동은 스타를 매개로 하는 동일시와 정체성 형성, 학교라는 공간을 넘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며[23],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자연스런 발달의 한 과정이다. 이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청소년의 팬덤 활동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을 주로 부모양육태도와 개인 요인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를 위해 활용된 자료가 이미 조사가 완료된 패널 자료였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 분석이 어려웠고, 그로 인해 보다 심화된 논의의 발전시키는 데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팬덤문화에서 나타나는 성별에 따른 차이와 팬덤활동의 유형에서 오는 차이도 고려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논의되지 못했던 다양한 변수 구성을 통해 청소년의 팬덤문화를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보완되고, 팬덤활동에의 참여가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자아정체성 등 삶의 구성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건강한 청소년 문화의 정착과 발달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와 프로그램의 제공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13 Hansei University Research Fund.

## REFERENCES

- [1] W. S. Choi · Y. H. Kim, Characteristics in Adolescent's Idolization of Entertainer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10, No. 2, pp. 171-192, 1999.
- [2] S. S. Kim, An Influence on Adolescents' Fandom Activities.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3, No. 6, pp. 167-176, 2013.
- [3] Y. I. Choi, Emotional Intelligence, Entertainer Idolization, and School Life Adjust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G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1.
- [4] E. M. An · S. H. Kim · S. Y. Jeun · S. M. Jin · I. J. Chung, The Effect of Fandom Activity Participation on Adolescent School Adjustment.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 28, No. 2, pp. 421-446, 2012.
- [5] Y. S. Lim, Adolescent Idolization of Public Stars and Psycho-socia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9, No. 3, pp. 57-78, 2002.
- [6] J. H. Jeon, A Study on the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Acting in a Fan-club for Entertainers: Focusing on Woobak Family, a Fan-Club for Rain. Department of Educa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1.
- [7] Y. S. Kim, Research on Youth Social Participation

- through Fan Clubs- Based on 'Girls' Generation' Fan Club-, The Journal of Civic Youth Studies, Vol. 2, No. 1, pp. 101-1421, 2011.
- [8] H. J. Kim · Y. S. Lim · S. J. Oh, The Relationship between Idolization and School Life Adjustment in Adolescence. Family and Culture, Vol. 12, No. 1, pp. 31-52, 2000.
- [9] H. J. Kim, Mediated through Peer Relationship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The Effects of Self-esteem on Idoliz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9, No. 1, pp. 115-139, 2002.
- [10] H. J. Kim · Y. J. Won, Fandom Evolves like a Moving Organism.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46, No. 2, pp. 253-278, 2002.
- [11] J. M. Choung, An Analysis of Youth Fandom Based on the Ground Theory.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1, No. 3, pp. 91-119, 2010.
- [12] J. H. Lim · J. S. Chun, Effect of Parenting Behaviors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School Adjustment among Male and Female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9, No. 8, pp. 169-190, 2012.
- [13] H. L. Chang · I. J. Chung,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Prosocial Behavior and Aggression Mediated by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40, pp. 33-61, 2013.
- [14] S. N. Seo · S. G. Lee · S. H. Lim, The Effect of Positive Parenting Style, Self-efficacy, Stress, and Depression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0, No. 8, pp. 327-333, 2012.
- [15] H. K. Shin, The Relationship of Academic Stress, Negative Affectivity, Alexithymia, and Perceived Parenting Behavior to Somatization i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21, No. 1, pp. 171-187, 2002.
- [16] S. K. Kim · M. K. Park · J. S. An, The Influence of School Adjustment on Life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 16, No. 2, pp. 163-182, 2014.
- [17] Y. M. Baek, The Effects of Circadian Rhythm on Life Satisfaction and Optimistic Attitudes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5, pp. 163-182, 2004.
- [18] M. Y. Kim, Mediated Effects of Confusion of Identity in Relation to a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and Depression, Anxiety and Compulsive Obsession: Focusing on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8, No. 9, pp. 337-362, 2011.
- [19] S. S. Kim, An Influence on Adolescents' Fandom Activities,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3, No. 6, pp. 167-176, 2013.
- [20] H. R. Yim · S. H. Kim · I. J. Chung, The Differential of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Psychosocial Adjustment,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 16, No. 4, pp. 1-27, 2014.
- [21] S. Y. Jeon, The Effect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Children's Behavioral Autonomy an Self Control on Children's Problems Behavior.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5, No. 4, 2007.
- [22] J. M. Choung, An Analysis of Youth Fandom Based on the Ground Theory. Journal & Article Management System, Vol. 21, No. 3, pp. 91-119, 2010.
- [23] H. S. Park · S. Y. Jung, Predictors of Addictive Behavior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 27, No. 3, pp. 592-607, 2013.

**백진아(Paik, Jina)**



- 1982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 1984년 8월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 1995년 8월 : University of Notre Dame (박사)
- 2006년 2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가족, 노동, 여성
- E-Mail : jpaik1@hanafos.com